

마스터스 내일 개막... '아멘 코너' 11~13번홀 승부처

지난해 코로나로 사상 첫 11월 개최 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려
작년 준우승 임성재 우승 도전...김시우·케빈 나 등 88명 출전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8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해마다 4월 같은 장소에서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1월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다시 원래 시기인 4월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마스터스는 불과 5개월 만에 새로운 '그린 재킷'의 주인공을 가리게 됐다.

대회 개최 시기는 4월로 '원상 복구' 됐지만 마스터스가 100% 예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회 개막 전날 열린 '파3 콘테스트'는 올해도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대회가 무관중으로 열렸으나 올해 일부 관중 입장 가능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이자 세계 랭킹 1위 데스티넨 존슨(미국)을 비롯해 지난해 아시아 국제 선수로는 최초로 마스터스 준우승을 차지한 임성재(23) 등 총 88명이 출전한다.

'메이저 사냥꾼'으로 불리는 브룩스 켈카(미국)는 3월 무릎 수술을 받아 올해 마스터스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대회장에 도착해 연습 라운드를 치르며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마스터스 기간과 겹쳐 이번 대회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던 온 램(스페인)도 5일 특남, 마스터스 출전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외에 김시우(26)가 출전하고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도 나온다.

외국 베테랑들의 우승 전망에 따르면 존슨의 2연패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윌리엄 힐은 존슨의 우승 배당률을 9/1로 책정했고 그 뒤를 이어 조던 스피스와 브라이슨 디샬보가 나란히 11/1,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와 램이 12/1이다. 9/1 배당률은 존슨의 우승에 1달러를 걸어 맞으면 9달러를 더해 1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래드브룩스 역시 존슨 8/1, 스피스와 토머스, 디샬보가 10/1, 램 11/1 순이다.

임성재는 윌리엄힐과 래드브룩스에서 15~16위 정도의 우승 배당률을 기록했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토머스의



마스터스 개막을 앞두고 6일 한국의 임성재(오른쪽)와 미국의 슈튜어트 싱크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연습 라운드 13번홀에서 나란히 칩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을 예상했고, 디샬보, 스피스, 존슨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재는 9위에 올려놨다. '아멘 코너'라는 별칭이 붙은 11~13번 홀이 난

코스로 좁히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작년의 이런 타수 관련 기록들을 의식해 올해 대회에는 난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 9일 밤 10시부터, 10일과 11일에는 밤 10시 30분부터 골프 전문 케이블 위성 채널인 SBS골프가 올해 마스터스를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완도군청 역도 이양재 '3관왕 번쩍'

실업역도선수권...최우수선수상도
여자부 이지에는 은메달 3개 획득

완도군청 역도팀 이양재가 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양재는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1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일반부(이하 남일반부) 109kg급에서 인상 186kg, 용상 230kg, 합계 416kg을 들어올려 3관왕이 됐다. 최우수 선수상도 수상했다.

이지에는 여자일반부 71kg급에서 인상 91kg, 용상 109kg, 합계 200kg으로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역도 국가대표 쌍두마차인 이양재와 이지에는 활약으로 서호철 감독은 부임 후 첫 대회에서 우수 지도자 상을 받았다. 그는 올 시즌 완도군청 지휘봉을 잡았다.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제69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및 제32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완도군청은 주목받는 성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실업팀에 입단한 막내 강민우가 남일반부 89kg급에서 인상 149kg, 용상 181kg, 합계 330kg으



완도군청 역도팀 선수단.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완도군청 이양재(왼쪽에서 두 번째)와 서호철 감독(가운데). <전남도체육회 제공>

로 인상과 합계에서 1위, 용상에서 2위에 올랐다. 또한, 남일반부 102kg급 김경빈(완도군청, 인상 80kg, 용상 100kg, 합계 180kg)과 여일반부 59kg

남자컬링, 세계 2위 캐나다 격파 '파란'

세계선수권서 10-9 재역전승

비실업팀으로서 태극마크를 단 남자컬링 국가대표팀(경기컬링연맹)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랭킹 2위 캐나다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2021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로빈 7차전에서 캐나다를 10-9로 꺾었다. 캐나다는 세계랭킹 2위의 컬링 강국이다. 한국은 세계랭킹 8위다.

팀 세계랭킹에서도 캐나다 대표 브렌던 보쳐 팀은 세계랭킹 4위를 달린다. 정영석 스킵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이 국제 대회 첫 출전이다.

1엔드에 3득점 하며 기선을 제압한 대표팀은 4-1로 앞선 4엔드 2점을 스틸(선공 팀이 득점)하며 6-1로 크게 앞섰다.

그러나 8-3으로 앞선 8엔드 캐나다에 4점을 대거 잃고, 9엔드에도 2점 스틸을 허용하며 8-9로 역전당했다.

대표팀은 후공을 잡은 마지막 10엔드에 스킵 정영석의 마지막 스톤으로 극적인 2득점에 성공, 짜릿한 승리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이탈리아, 러시아컬링연맹(RCF), 노

르웨이, 스코틀랜드, 덴마크에 5연패를 당했다가 전날 네덜란드를 5-4로 꺾으며 첫 승을 올렸다.

탄력을 받은 대표팀은 캐나다까지 제압, 2연승을 달리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 희망을 이어나갔다.

대표팀은 스킵 정영석과 리드 이준형, 세컨드 박세원, 서드 김정민, 그리고 서민국 선수 겸 코치로 구성됐다. 모두 경기도 의정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들은 실업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북체육회(스킵 김창민)의 2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태극마크를 차지해 화제에 올랐다.

전날 세계선수권 첫 승을 거두고는 "비현실적이다. 세계선수권에서 첫 승을 거두는 꿈이 실현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14팀 중 6위 안에 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다. 예선 1-2위 팀은 준결승에 직행하고, 3위와 6위 팀, 4위와 5위 팀은 준결승 티켓을 두고 다툰다.

2승 5패로 11위를 기록 중인 대표팀은 7일 중국과 스웨덴, 8일 독일, 9일 일본과 스위스, 10일 미국과 경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 7차전 한국 대 캐나다의 경기에서 한국 국가대표팀(경기컬링연맹)의 정영석 스킵(왼쪽·26)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프랑스오픈 테니스 2년 연속 연기 가능성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이 2년 연속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6일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봉쇄령을 내리면서 올해 5월 개막 예정인 프랑스오픈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3월 31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내렸다.

프랑스가 코로나19로 전국 이동 제한 명령을 발효한 것은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는 지난해 5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9월로 연기돼 치러졌다.

올해는 남자프로테니스(ATP),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들이 비교적 큰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 중이라 프랑스오픈의 5월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시 상황이 악화하면서 연기 가능성이 나왔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은 올해 1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2월로 약 3주 정도 일정을 미뤄 진행됐다.

프랑스의 특사나 마라치아누 체육부 장관 역시 "올해 프랑스오픈이 연기될 수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올해 프랑스오픈의 개막 예정일은 5월 23일이다. 스카이스포츠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전국 봉쇄령이 5월 중순에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참가 선수들의 입국이나 대회 준비 등에 필요한 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프랑스오픈의 정상 개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자산어보, 더스트맨, 최면
4관	자산어보, 최면
5관	자산어보
6관	고질라 VS. 콩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세세커피	미나리
8관 세세커피	더 파더, 피터 베타 팔콘, 싱크로닉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